

성경해석학

제 6 강

의미 찾기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6 강 의미 찾기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길잡이(Guides)	2
A. 저자(Writer)	5
B. 본문(Document)	7
C. 독자(Audience)	9
D.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13
III. 요약(Summaries)	17
A. 구절의 복잡성(Complexity of Passage)	18
B. 해석자의 독특성(Uniqueness of Interpreter)	22
C. 독자의 필요(Needs of Audience)	24
IV. 결론(Conclusion)	27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6 강 의미 찾기(Discovering Meaning)¹

I. 서론(INTRODUCTION)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온갖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매번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어린 시절의 선생님들을 추억하며 혼자서 스스로 교훈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깨닫는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교훈을 통해 매일 매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가졌던 것에 대해 더욱 더 감사해야 한다. 여러 면에서 성경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길잡이를 제공하셨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항상 그 의미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해석학** 강좌의 여섯 번째 강의이며, 그 제목은 “의미 찾기”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해석학적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¹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성경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상 단 두 가지 요소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길잡이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양하게 요약하는 것의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우리를 성경의 의미로 안내하는 길잡이들을 살펴보자.

II. 길잡이(GUIDES)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의 일반적인 해석학적 전략을 문법적-역사적 방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특히 종교개혁 시대부터 추적할 수 있는 접근법을 나타낸다. 사실상 문법적-역사적 방법은 성경의 문법, 곧 성경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대 역사적 맥락, 특히 성경의 저자와 독자의 맥락의 관점에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법적, 역사적 요소는 성경의 의미를 찾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주요 길잡이, 곧 본문의 저자, 본문 자체, 본문의 원래 독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셨을 때, 그분은 기록자들의 재능과 개성을 통해 역사하셨다. 따라서 저자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들이 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령님께서서는 또한 각 책을 하나의 통합된 통일체로 만드시며 각 구절이 그 자체의 문법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기에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셨다. 따라서 본문은 그것의 모든 구절이 해석되어야 하는 문학적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 자체도 역시 우리의 해석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

성령님은 또한 그분의 영감을 받은 책들이 반드시 원래의 독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도록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독자들의 정체와 삶을 탐구함으로써 성경의 의미에 대하여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식당에서 한 남자가 바닥에 버려진 쪽지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 쪽지에는 단지 "도와주세요(HELP)!"라는 한 단어만 적혀 있다. 그는 그 쪽지를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 뜻을 알아내는 데 기여할 것은 별로 없다. 쪽지를 발견한 그 남자는 "더 많은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불평한다. 다른 친구는 "누가 그걸 썼는지 알 수 있다면 좋겠어."라고 덧붙인다. 또 다른 친구는 "누가 이 쪽지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라고 말한다. 사실 이 쪽지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하던 게임의 일부일 수도 있다. 아니면 메뉴에 대한 도움의 요청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다. 추가 정보를 줄 길잡이가 없다면 그 남자와 그의 친구들이 쪽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도 그와 비슷하다. 성경의 저자와 독자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성경의 더 넓은 맥락을 모른 채 구절을 읽으면 성경이 의도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저자, 본문 또는 독자에 대해 얻는 모든 지식이 성경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키너[Craig S. Keener] 박사)²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거듭남 또는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환생, 곧 다시 태어나는 것,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게 오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절의 문법적 의미, 곧 문학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몇 가지 역사적

² **Dr. Craig S. Keener** is the F.M. and Ada Thompson Chair of Biblical Studies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배경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거듭남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을 특히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관점에서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생[=니고데모]에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더 큰 맥락으로 나아가며 요한복음 8 장에서 말씀하신 것, 곧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이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러한 예들을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성경의 문화적 맥락과 문법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상황과 배경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는 원리들, 곧 다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시몬 비버트[Simon Vibert] 박사)³ 현대 독자가 성경의 문법적 또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분은 별다른 교육 없이 그리고 성경 본문 외에 별도의 도구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성경적 도구와 자료 없이도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의 신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락들과 문들이 결합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해당 구절이 쓰여진 문맥을 이해한다면, 독자는 본문에 대하여 더 명확하고 더 큰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먼저 우리는 각각의 길잡이, 곧 저자와

³ **Dr. Simon Vibert** is the former Vicar of St. Luke's Church, Wimbledon Park, UK, and is presently the Vice Principal of Wycliffe Hall, Oxford, and Director of the School of Preaching.

본문과 독자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들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저자에 의해 제공되는 해석적 도움을 살펴보자.

A. 저자(WRITER)

성경의 어떤 책(들)을 쓴 인간 저자를 고려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는 그 저자의 정체성을 알기 원한다. 그는 누구였는가? 때때로 성경은 실제로 여러 책에서 저자 이름을 밝혀 준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서와 이사야서는 각각 선지자 아모스와 이사야가 직접 쓴 것으로 언급한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서신과 바울 서신은 명시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밝힌다. 그러나 구약의 사사기와 열왕기, 신약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등 성경의 여러 책들이 익명(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저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에 만족해야 한다. 저자의 이름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일반적인 역사 연구와 성경 자체를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모든 성경 저자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의 특별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책에서 어떤 개념, 행동, 감정을 강조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통찰력은 항상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저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는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인도한다.

요한 복음 3 장 16 절의 저자에 초점을 맞추어 저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이 친숙한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요 3:16 개역개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복음은 야고보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썼다. 그는 예수의 가장 신뢰받는 핵심 제자들 중 하나였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기둥이었다. 그는 요한 복음 외에도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 계시록도 썼다. 이러한 요한의 책들을 통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등

다른 성경 저자들이 요한에 대해 말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요한의 신앙과 그가 그 신앙을 청중에게 전달한 방식에 대해 유용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 20:31 에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혔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 20:31 개역개정)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촉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제 우리가 저자와 그의 목적에 대해 알기 때문에 요 3:16 에서 이와 동일한 이중 목표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현대 번역본 편집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요 3:15에서 끝나고 그 말씀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 요 3:16 에서 시작된다고 간주하는데 그것은 옳다. 요 3:16 의 전반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 20:31 의 전반절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와 상응한다. 요 3:16 의 후반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 20:31 의 후반절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와 상응한다.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은 많은 해석가들이 수천 년 동안 인식해 왔던 사실을 입증한다. 요한은 요 3:16 이 단지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진술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도 요한에게 중요했지만, 요한이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의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의 목적과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복음서를 더 적절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는 길잡이로서 저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길잡이인 성경 본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B. 본문(DOCUMENT)

우리가 사용하는 본문이라는 단어에는 어휘, 문법, 비유법, 문의 구조, 형식적 구조, 주장의 개요, 주변의 문학적 맥락 등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의 모든 특징이 포함된다. 신뢰할 만하고 확실한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영감받은 저자가 쓴 실제 단어와 문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 본문을 탐구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다양한 크기의 단위로 그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 단위는 장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수형, 복수형, 동사 시제 등을 나타내는 단어의 작은 특징인 형태소에 의해 의미가 전달된다. 의미는 또한 단어, 구, 절, 문, 산문의 문단, 시의 연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그리고 전체 내러티브, 연설 또는 법전, 심지어 책 전체와 같은 더 큰 단위들도 의미의 단위로 사용된다. 흥미롭게도 더 작은 단위의 의미는 더 큰 단위에 비추어 보면 더 명확해지고, 더 큰 단위의 의미는 더 작은 단위를 비추어 보면 더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이 어떻게 우리를 그 의미로 인도하는지 알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수준에서 그것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자주 오해를 받는 요 3:16 의 한 측면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 3:16 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so) 사랑하사..."로 시작한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크게(so greatly)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귀히(so dearly) 사랑하사..."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많이(so much) 사랑하사..." 등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요 3:16 의 시작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너무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처럼(so)"이라는 단어를 "아주 크게", "아주 귀히" 또는 "아주 많이"의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의도한 것인지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 3:16 을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이처럼(so)"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so greatly/so dearly/so much)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분명해진다.

우선, "이처럼(so)"이란 단어는 헬라어 οὕτως[후토스]를 번역한 것이다. 이 헬라어 부사는 때때로 "아주 크게(so greatly)" 또는 "아주 많이(so much)"라는 의미를 갖지만, 훨씬 더 자주 "이렇게(thus)", "이런 식으로(in this way)" 또는 "이런 방식으로(in this manner)"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요 3:16 에 나오는 [후토스]를 바로 앞에 나오는 절들, 곧 요 3:14-15 에 비추어 보면, 요 3:16 의 [후토스]가 "아주 크게, 아주 많이"의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⁴ 요 3:14-15는 이렇게 말한다.

(요 3:14-15 개역개정)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15 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때"와 예수님 자신이신 "인자가 들려야 할 때"를 비교하고 계신다.

요 3:14 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벌하신 민수기 21:4-9 을 언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 뱀뱀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고, 그 뱀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치유되었다. 이 유추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들릴 때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just as ... so ...)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4 절의 이 비교에서 "so 그렇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6 절의 서두에 나오는 단어인 [후토스]와 같은 단어이다. 예수님은 뱀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것처럼(thus)" 또는 "같은 방식으로, 그와 동일하게(in the same way)"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16 절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이 비교를 다시 꺼냈다.

⁴ [역자주]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이처럼"으로 번역했고 쉬운성경은 "이와 같이"로 번역했다. 하지만 공동번역은 "극진히"라고 번역했고 카톨릭성경은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로 번역했다. 쉬운성경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원문의 [후토스]가 문의 서두에 오는 것과 그 의미를 매우 잘 반영한 번역으로 보인다.

사실상 요한은 [후토스]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서 모세가 뱀을 든 것에 대한 두 번째 비교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16 절을 통해 모세가 한 일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때 하신 일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다.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 (3:16)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는 성경의 본문 자체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저자와 본문이 어떻게 해석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길잡이인 독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C. 독자(AUDIENCE)

(스캇 레드[Scott Redd] 박사)⁵ 성경의 책들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대한 놀라운 점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특정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그리고 특정 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정하시며 그들의 걱정과 관심, 그리고 주변의 세상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과 소망을 고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전달되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메시지의 일부가 된다.

성경의 어떤 책을 처음으로 읽거나 듣게 된 원래의 독자를 고려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독자들의 정체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때때로 어떤 성경 책들은 독자가 누구였는지 분명하게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중 로마서는 그 독자가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 독자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⁵ **Dr. Scott Redd** is Campus President of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Washington D.C. and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책은 독자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간접적인 단서에 만족해야 한다.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역사적 연구와 성경 자체를 통해 원래 독자의 일반적인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독자는 어디에 살았는가? 그들의 역사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가? 그들은 어떤 개념적, 행동적, 정서적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래 독자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모든 것은 성경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원래 독자가 성경 기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없지만, 성경 저자들은 보통 원래의 독자와 이차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 성경 저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지만, 간접적으로 책을 접하게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글을 썼다. 이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읽고 쓰는 능력이 소수의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집어 들고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래의 일차적인 독자와 이차적인 독자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를 더 잘 탐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요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원래 독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자. 요한 복음의 경우, 일차적인 독자와 이차적인 독자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간접적인 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요한은 팔레스타인의 관습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자주 느꼈다. 요 4:9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관해 그가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라.

(요 4:9 개역개정)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요한의 해설을 보면 적어도 그의 독자의 일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요한이 그러한 관습이 알려진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로 글을 썼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요한의 독자 중 적어도 일부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는 1장 41절과 4장 25절에서 두 번이나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요 9:22 에 나오는 요한의 말을 들어보라.

(요 9:22 새번역)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회당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출교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의 삶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요한의 독자 중에 이방인과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독자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도전에 대한 한 가지 단서는 요한이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주제는 너무 두드러져서 일부 해석자들은 요한 복음이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예수님과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민족에 대한 언급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요한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의 반대자로 자주 언급한 것은 요한의 독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한 이유들을 자주 언급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 중 두 가지만 언급할 것이다.

한편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요 10:36 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반대자들을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들어보라.

(요 10:36 개역개정)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의 구주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혔다. 예를 들어, 요 4:42 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들은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보인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읽는다.

(요 4:42)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셨다.

요한의 원래 독자에게 이 두 주제(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제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주제)의 중요성은 요 3:16 같은 구절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 3:16 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독생하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 맥이완[Robert K. MacEwan] 박사)⁶ 성경의 모든 책은 원래 독자를 위해 기록되었다. 21 세기의 우리는 원래 독자가 아니다. 나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서신 곧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흥미롭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읽을 때—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히 서신서들을 읽을 때—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도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원래의 독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며, 신약 성경의 경우 그 원래의 독자는 1 세기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독자의 상황과 관심사 그리고 원래 독자에게 글을 쓴 성경 저자의 상황과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⁶ **Dr. Robert K. MacEwan** is Director of the Chinese Theology Department at East Asia School of Theology.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책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원래 독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자, 본문, 독자가 성경의 의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으므로, 이제 그것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살펴보자.

D.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급한 각 길잡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의 본문과 원래 독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문의 단어와 문법은 저자와 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석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길잡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지침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 중 한두 가지에 치우쳐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자와 본문과 독자는 의미에 대한 상호 의존적인 길잡이들이다.
이들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저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는 종종 의도의 오류에 빠진다. 의도의
오류란 우리가 저자와 그의 의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우리가 본문과 독자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 해석에서 의도의 오류를 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저자가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추측함으로써 저자의 의도에 대해 근거없는 가정(역측)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저자에 대한 타당한 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본문과 별로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잘못 가정할 수도 있다.

요 3:16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의도의 오류들을 예시해보자.
우리는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할 때 독자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고 의도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요한이 이 말씀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한 모든 미묘하고 심리적인 영향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성경과 믿을 만한 역사는 그러한 모든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릴 만큼 요한의 내면의 생각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의 생각이 요 3:16의 의미와 특별한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시몬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본문의 권위와 의도에 높은 가치를 두는 해석자들은 때때로 의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의도의 오류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저자가 실제로 의미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추측하는 데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독자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아내에게 이메일을 쓰는 나이든, 오늘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든, 현대의 책을 쓰는 저자이든, 모든 저자들은 저자로서 그리고 자신이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일부를 그 본문을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인간 저자들이 성경 책들을 기록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 저자들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먼저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쓰도록 도우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현대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실수는 본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오류는 자주 그래픽 오류라고 불린다. “그래픽”이란 용어는 “쓰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γραφή[그라페]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그래픽 오류는 본문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저자와 독자와 같은 문맥적 고려 사항을 상대적으로 배제한다. 이것이 오류 혹은 실수인 것은 동일한 본문이라도 누가 썼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나 원래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구절의 어휘,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구절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로 들어 살피고 있는 요 3:16 에서 우리가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저자 요한과 그의 원래 독자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만약 독자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이고 요한이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글을 썼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들은 온갖 무책임한 가정을 하였을 것이다.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안 신 엘의 아들인 바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담이 눅 3:38 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실에 익숙한 사람은 요 3:16 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담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심지어 아담과 예수님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다른 독자들은 "독생자" 혹은 "세상"과 같은 용어나 영생의 개념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자와 독자를 무시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해석적 실수는 독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주 정서적 오류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오류는 해석자가 원래 독자의 사고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추측하고 저자와 본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종종 발생한다. 믿을 만한 역사로부터 독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원래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확실히 타당하다. 그러나 정서적 오류는 이를 넘어 본문에 대한 독자의 개인적인 반응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거의 항상 주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성경 읽기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요 3:16 에서 정서적 오류는 원래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영생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에 관하여 보인 그들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추측을 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요한이 생명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가 실제로 의미한 것은 원래 독자가 지상에서 견뎌야 했던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탈출이지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영적 갱신과 축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의 더 넓은 가르침과 본문 자체의 세부 사항을 무시한 채, 그 구절이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개리 코커릴[Gary Cockerill] 박사)⁷ 원래의 독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특히 그 독자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성경의 어떤 책이 염두에 둔 그 원래 독자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 구약 성경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대하여 말을 하자면, 우리는 대부분의 신약 책들이 대상으로 삼은 원래의 독자에 대하여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의 독자에 대해 가설을 세우려고 할 때 타당하지 않은 독자를 상정함으로써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알다시피 내가 전공한 책인 히브리서의 경우 원래의 독자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독자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왜곡된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책들이 1 세기에 기록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1 세기의 문화와 언어, 기록 방식 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 독자층에 대한 가설을 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복음서들의 경우, 우리는 그것들이 교회를 양육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은 잘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상을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의도의 오류, 그래픽 오류, 정서적 오류와 같은 실수들은 쉽게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일부 길잡이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항상 본문의 저자나 독자에

⁷ **Dr. Gary Cockerill** is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Biblical Theology at Wesley Biblical Seminary.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없다. 많은 성경 책들이 익명(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본문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는 사물이 성경의 원어로 진술된 방식이 주는 함의와 같은 모든 성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에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가 더 제한적일 때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좀 더 일반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본문, 독자로부터 얻는 지침의 상호 의존성을 적절히 고려할 때, 이러한 지침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해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미 찾기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길잡이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요약물을 만드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III. 요약(SUMMARIES)

오래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두 분 이상의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본문은 같지만 설교의 내용이 매우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설교, 아주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온전할 수 없고 그것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항상 배울 것이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구절을 요약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한 구절에 대해 여러 가지 요약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요약(summary)”이라는 단어를 “구절에 대한 설명(a description of a passage)”이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요약은 특정한 관점에서 나오며 구절에 나타나는 특정한 개념을 강조한다. 모든 구절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약은 우리가 연구 범위를 좁혀서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복잡하고 극적인 연극을 관람하는 한 그룹의 학생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 요약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연극이 끝난 후, 학생들은 연극의

의미를 요약하도록 요청받는다. 한 학생은 이야기 전체를 통해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연극을 요약한다. 또 다른 학생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요약한다. 또 다른 학생은 그 극작가가 당대의 문화적 가치를 비판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은 그 아름다운 무대 연출과 풍부한 표현 언어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이 모든 반응은 연극의 의미를 정당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 요약 중 어떤 것도 연극의 전체 의미를 완전히 담아낸 것은 없다. 우리가 연극의 전체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요약과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예는 여러 개의 요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다중 요약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의미의 개별적인 측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우리가 연극의 총만한 의미를 점점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성경 구절의 의미를 요약하는 타당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약은 그 의미의 여러 측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당한 요약을 종합하면 우리는 성경 구절의 총만한 의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요약하는 것의 이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의 복합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해석자의 독특성을 언급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의 요약이 지향하는 독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 먼저 본문의 복합성을 탐구해보자.

A. 구절의 복합성(COMPLEXITY OF PASSAGE)

이전 강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성경 구절의 복합성은 주로 그것의 문자적 의미 곧 원래의 의미가 마치 잘린 보석처럼 다면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성경 구절은 역사적 사실, 교리, 도덕적 의무, 구원과 종말론 등을 나타내는 측면들을 갖고 있다. 모든 성경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도덕적 함의를 전달한다. 모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와 구원에 대해 가르쳐주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경 구절이 전달하는 이러한 것들은 각각 요약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의 의미는 다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고 여전히 그것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할 수 있다. 성경의 복합성은 우리의 요약이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철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되고 뚜렷한 요약들을 항상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한 동일한 성경 구절(시 110:1)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어떻게 다르게 요약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시 110:1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라.

(시 110:1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신약 성경은 시 110:1 을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매번 원래 의미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 중 어느 것도 다른 구절들이 시편의 원래 의미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눅 20:41-44 에서 예수님은 시 110:1 을 인용하시며 메시아가 혈통상의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임에 틀림없음을 보여주셨다.

행 2:32-36 에서 베드로는 시 110:1 을 사용하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윗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다.

신약 성경은 또한 시편 110 편 1 절 말씀이 다윗의 주님께 드리는 말씀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는 시편 110편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언급한다. 엡 1:20-22, 고전 15:25, 히 10:13 은 모두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가 그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시편 110 편의 원래 의미의 이러한 측면을 요약한다. 심지어 히 1:13 은 시 110:1 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천사의 사역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 110:1 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은 각각 시편의 원래 의미에 충실하다. 그러나 각각은 그 원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요약이면서도 뚜렷한 강조점이 있다. 이는 시 110:1 이 지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원래 의미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렉 페리[Greg Perry] 박사)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 해석 전통에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드라시 기법이라고 부른다. 헛갈리는 흔한 구절 중 하나는 마태 복음에 나온다. 그것은 성취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태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는 구절이다. 마태 복음 2 장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마태는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여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한다(마 2:15). 성경 주석가들은 종종 마태의 이 말을 인용하며 호세아가 수백 년 전에 그 말을 썼을 때 원래 의미했던 것과 어떻게 그것이 일치할 수 있는냐고 말한다. 특히 마태 복음의 처음 네 장을 통해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며 이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참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런데 그 전에 마태 복음 2 장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돌아온다. 이것이 성경 저자들이 모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한 패턴을 성취하셨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패턴, 그런 모형론은 특히 마태 복음의 처음 네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 실제로 입증된다. 여기서

⁸Dr. Greg Perry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Director of City Ministry Initiative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며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실제로 밝히 드러난다.

(존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⁹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볼 때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신학교에서) 자주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원래의 독자들을 위해 의도했던 것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구약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첫째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해석한다. 둘째로, 신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구약을 암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럴 때 그들은 실제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고 방식을 고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예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구약의 어떤 것을 예로 끌어온다. 그럴 때 그들은 구약의 배경이나 그런 종류의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구약을 예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신약이 구약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가 해석적인 직접 인용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암시적이거나 예시적인 구약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신약이 채택한 세 가지 방식의 구약 사용을 이해하고 그러한 구분을 하면서 신약을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성경의 모든 구절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본문은 여러 가지 타당한 요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요약은 장소, 시간,

⁹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모든 요약이 똑같이 가치 있거나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에 충실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에 유용한 요약들은 많이 있다.

지금까지 구절의 복합성이 어떻게 여러 개의 요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해석자의 독특성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B. 해석자의 독특성(UNIQUENESS OF INTERPRETER)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권위-대화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했다. 여러분은 권위-대화 모델이 성경의 표준을 준수하는 한 성경 본문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권위-대화 모델의 한 가지 귀중한 측면은 모든 해석자가 서로 다른 관심사, 가정(假定), 배경, 질문 등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성경을 다르게 읽는다. 우리 모두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의 강점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교회를 설계하셨다.

사람들은 각자의 은사와 배경에 따라 성경 구절을 독특한 방식으로 요약한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는 창세기 1 장의 의미를 예술가와 다르게 요약할 수 있다. 역사학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물과 마른 땅,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가는 밤 하늘의 별과 전 세계의 물고기와 새들의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석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강점에 따라 본문이 지닌 원래 의미의 중요하면서도 각기 다른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두 유형의 요약은 그 약점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각 요약이 다른 요약에 포함된 중요한 진리를 생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싶어서 창세기 1 장부터 탐구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역사가의 요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조직적인 계획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창 1:31 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누리신 기쁨을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가의 요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흠잡을 데 없이 창조적인 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의도와 질서 정연함을 간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 약점을 통해 우리는 어떤 요약도 단순히 우리의 요약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요약을 통해 성경 구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바이즈[P. J. Buys] 박사)¹⁰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경 해석이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도록 의도하셨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권면을 주는 것이 거의 65 번이나 나온다.¹¹ 예를 들어, 서로 권면하라, 서로 세우라, 서로 인도하라 등과 같은 지침이다. 사도 바울은 엡 3:18 에서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교제할 때만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정말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대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을 경험했다. 나는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놀랍게도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통찰력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데니스 존슨[Dennis E. Johnson] 박사)¹²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본 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가

¹⁰ **Dr. P.J. Buys** is Associate International Director of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and Adjunct Professor of Missiology Research at Northwest University in Potchesfroom, South Africa.

¹¹ [역자 주] (biblehub.com) Strong's Greek 240: 100 Occurrences: ἀλλήλων — 20 Occ.; ἀλλήλοις — 13 Occ.; ἀλλήλους — 67 Occ.

¹² **Dr. Dennis E. Johnson** is Academic Dean and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t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생각한다. 나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보았고, 구약이 그분의 교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히브리어 본문과 고대 근동의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구약 본문에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는 친구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다.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 구절을 살피며 그것의 원래 배경을 알고 싶을 때 나는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친구들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나는 나만의 맹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맹점은 단지 나의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더 오래 동행한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배운다. 그들은 성경에서 상황과 형편을 잘 포착한다. 그들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측면 곧 성경이 나의 삶과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함의를 본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더 오래 동행한 형제자매들로부터 큰 유익을 얻는다.

지금까지 구절의 복합성과 해석자의 독특성이 어떻게 여러 가지 요약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독자의 필요를 고찰할 것이다.

C. 독자의 필요(NEEDS OF AUDIENCE)

성경의 원래 의미를 요약할 때 우리는 종종 다양한 독자의 필요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요약한다. 가끔 우리는 어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본문을 요약한다. 종종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준비한다. 때때로 우리는 특정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거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독자에 따라 필요한 것이 매우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경을 책임감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하려면 우리는 특정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요약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요 16:33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

(요 16:33 개역개정)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절을 요약하는 데는 여러 가지 타당한 방법이 있다. 우리는 평강에 초점을 맞춘 요약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요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고난과 씨름하고 있는 독자를 위해 이 구절에 대한 요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정치 당국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가난이나 자연 재해로 고난을 받는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현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최악된 행동으로 고난을 받는다. 물론, 고난의 다른 원인들도 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 이처럼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약으로는 이 다양한 모든 독자들에게 꼭 맞도록 요 16:33의 가르침을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박해를 받는 독자를 위해 요 16:33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박해를 끝내시고 여러분이 다시는 박해를 받지 않을 세상을 세우실 것이므로 용기를 내라.

그러나 가난이나 자연 재해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요 16:33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셨으나 결국 여러분이 겪은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독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요 16:33의 복합적인 가르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화적 차이도 있다. 각 문화는 서로 다른 역사, 서로 다른 사회 구조, 서로 경쟁하는 종교적 관점,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려면,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성경 요약을 찾아야 한다.

(필립 라이켄[Philip Ryken] 박사)¹³ 목회 사역의 특권 중 하나는 다양한 청중—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매우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 사역은 목회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다. 나는 청중을 바로 이해하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 첫째로, 청중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나의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잘 이해하셨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최근 설교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줄곧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둘째로, 청중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인 회중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은 설교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 더 짧고 단순한 형태로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것은 목회자가 간결함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처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 항상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맷 프리드먼[Matt Friedeman] 박사)¹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을 우뇌형과 좌뇌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좌뇌형 사람들은 매우 분석적이고 사실을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우뇌형 사람들은 이야기와 설명과 사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나는 이 두 유형의 중간쯤에 있는 편이라서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여러분이 접하는

¹³ Dr. Philip Ryken is President of Wheaton College.

¹⁴ Dr. Matt Friedeman is Professor of Evangelism and Discipleship at Wesley Biblical Seminary.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나치게 우뇌적인 곳도 있고 지나치게 좌뇌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러한 곳에 적응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기꺼이 다른 성경이나 다른 경험과 상관지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도 말씀하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우뇌형이든 좌뇌형이든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다양한 청중에게 아주 잘 적응하셨다고 생각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본문의 원래 의미와 현대 독자의 필요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 면에서 성경 연구는 원래 의미와 현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우리 모두가 성경 본문의 충만한 의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교회를 귀중하게 섬길 수 있는 성경 요약들을 갖게 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다.

IV. 결론(CONCLUSION)

의미 찾기에 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저자, 본문, 독자에게서 발견하는 의미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약들이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원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 본문 자체를 주셨고, 이 문서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문법적, 문학적 맥락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저자와 원래 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주셨다. 이 외에도 성경의 모든 부분의 원래 의미는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일 살아가며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